

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전문기자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본지 문형철 국방전문기자(사진)가 지난 4월 1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문 전문기자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육군발전자문위원회 교수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감사패는 '육군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은 강한 육군의 초석이 될 것'이란 문구로 문 전문기자의 공로를 드높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



NH농협생명, 포천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NH농협생명이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2일 김인태 대표이사(왼쪽)와 임직원 30여 명이 경기 포천시 소흘읍 포도농가를 찾아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4일 밝혔다. NH농협생명 임직원은 농민과 포도 봉지 싸우기 작업을 함께 하며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보탤다.

/NH농협생명



김기형 메리츠증권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메리츠증권은 김기형 기업금융사업총괄 사장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기형 메리츠증권 기업금융사업총괄 사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남양유업 나주공장 임직원 '사랑의 헌혈운동'

남양유업 나주공장 임직원 28명이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헌혈운동' 활동에 동참했다. 코로나로 혈액 수급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지난해부터 남양유업 나주공장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헌혈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헌혈하는 나주공장 임직원들 모습.

/남양유업

한국파파존스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
국제로타리 서울총재 취임



한국파파존스는 서창우 회장이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 총재 취임식'에서 2021-22년도 총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회장은 한국로타리 내 19개 총재들로 구성된 한국총재단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조효경 기자 princess@

유명인 허락없이 관련 상품 판매한다면



박 상 오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LAW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사례 가운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도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됐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차)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됐다(이후 다시 조문 위치만 차목에서 카목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소속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위 조항에 근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월간 연예잡지를 발간하는 어떤 잡지사가 BTS의 행사나 공연 사진, 비하인드컷이 수록된 화보집을 소속사의 허락 없이 발간하려고 하자 BTS의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가 해당 화보집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BTS의 소속사 측은 위 잡지사의 행위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선 BTS의 소속사가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 BTS와 관련해 쌓인 명성·신용·고객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에서 말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또한 대법원은 BTS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위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고,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 잡지사가 발매판 특별부록 등은 BTS의 소속사가 BTS 화보집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경쟁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위 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잡지사가 무단으로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BTS 소속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BTS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사례뿐 아니라 여러 유튜브나 인플루언서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유명세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바른

홈플러스,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터 된다

행안부·6개 지자체 업무협약 온라인몰에 별도 상품관 개설 197개 기업 1289개 상품 입점

홈플러스는 행정안전부 및 6개 지방자치단체(유통지원센터 운영 또는 조성 중인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홈플러스는 온라인몰에 '사회적경제상품관'을 새로 만들고 각 시·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197개 기업, 1289개 상품이 입점 대상이며 이 중 155개 기업, 약 400개 상품은 8월 말까지 입점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업 및 상품은 요건을 조율하며 입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홈플러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유통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등록, 구매확인 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홈플러스 역시 판매수수료 인하, 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민·관 협력에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폐트병 재활용' 블랙야크 TF팀, '한국판 뉴딜' 선정

비와이엔블랙야크의 뉴라이프텍스 TF팀이 지난 2일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비와이엔블랙야크 뉴라이프텍스 TF팀은 국내 폐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그린 뉴딜'의 이념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뉴라이프텍스 TF팀은 기존 재생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에서 비와이엔블랙야크 뉴라이프텍스 TF팀이 상패를 수여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뉴라이프텍스 TF팀의 김정희 상무와 정희욱 대리, 한정에 환경부 장관, 김재훈 뉴라이프텍스 TF팀 차장.

/블랙야크

폴리에스터 패션 상품이 수입 폐트병 원료에 의존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조 직이다. TF팀을 주축으로 비와이엔 블랙야크는 스파클, 두산이엔티, S

M티케이케이칼과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7월에 국내 투명 폐트병을 재활용한 패션제품 시장화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건국대 경영대학 AACSB 국제 인증 2회 연속 획득

건국대학교는 경영대학이 최근 세계적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관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경영교육인증'을 2회 연속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AACSB 재인증으로 건국대 경영대학은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경영전문대학원의 MBA 등 모든 경영학위과정의 교육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 인증은 5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으며 건국대는 2026년 6월까지 AACSB 인증 대학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건국대는 ▲교육진의 산학연계 연구 성과 ▲활성화된 동문 멘토링 ▲인턴십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제공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ihj@

부음

▲김성영(전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리과장)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김기주(GS홈쇼핑 매니저)·김정원(한예중 대학원과정 강사)씨 부친상 = 4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6일 오전 6시, 031-219-6654

▲김재봉(전 서울대신교 교감)씨 별세, 홍영자씨 남편상, 김중수(한류타임즈 대표·전 아주경제 산업부 부국장)·민지씨 부친상 =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11시, 02-2227-7556